

FTA FOCUS

2018년도 관세청 FTA 행정 운영방향

성태곤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태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8년도 관세청 FTA 행정 운영방향

관세청은 기업 자율준수형 FTA 특혜 제도 도입 추진,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등 FTA 활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 내실화, 수출검증 지원,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운영 방향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FTA 상대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해외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수출확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FTA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II. 2017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지난 한 해 관세청의 FTA 활동을 살펴보면, 'FTA 통관 원활화'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FTA 통관 원활화 부분에서는 원산지증명이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김치 등 전통식품 3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빙을 간소화하여 FTA 활용을 촉진하였고, 일반특혜(APTA)도 FTA와 같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였으며, 한-중 FTA에서 구현한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확장하여 APTA(한-중 간)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비용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가 쉽게 판정될 수 있는 간이발급 대상 161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와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부문에서는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일반과정·특화과정·수요자 맞춤형 과정 등 FTA 현장실무 중심 10개



교육과정을 783회 개최하여 9,313명의 원산지관리 실무인력을 양성하였고,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667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3%의 수출 신장(1.2억불→1.9억불) 및 373개사의 FTA 시장 진출을 성공시켰다.

또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및 설명회를 총 310회 1,092개사를 지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의 수출이 증가(94.7억불 → 113.6억불)되었고, 140개사가 신규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한편, 수출기업의 검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검증 대응 간담회 및 모의검증을 실시하였고, 주요 협정별(한-미, 한-EU, 한-중, 한-아세안)로 빈번한 오류 유형 등을 반영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주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하였다.

III. 2018년도 FTA 행정 추진방향

2018년 정책추진 여건을 보면, 세계경제가 회복세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교역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2017년과 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수출 기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FTA 제도, 활용지원, 검증, 대외 협력 등 제반 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기업 자율 준수형 FTA 특혜 제도 도입 추진과 원산지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등 FTA 활용부담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 내실화, 수출검증 지원, FTA 해외통관 애로 해소이다.

1. 기업 자율준수형 FTA 특혜 제도 도입 추진

선통관·후심사 원칙과 원산지증명서의 제한적 보완 인정으로 인한 원산지 검증의 수용성 하락 및 기업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여 수입자의 특혜관세신청에 대한 위험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informed compliance)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정산 FTA 특혜 도입과 원산지 증명서 자율보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자율정산 FTA 특혜는 기업이 특혜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관세사 등의 검증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보완이란 수입자가 지정기간 내에 미비된 원산지증명서 보완을 완료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대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FTA특혜법령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등 FTA 활용 부담 완화

특혜적용 물품의 수입통관이나 협정적용 신청 등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빙자료는 원본 서류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자료 보관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고, FTA 활용이 저조한 농수축산물·국내 제조 공산품 관련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간소화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FTA 특혜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를 종이 서류 뿐만 아니라 자료 보관 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화 할 예정이며,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대상 품목(화장품, 가공식품, 원양어업 등) 및 서류의 확대와 「원산지증명서 간이 발급제도」의 대상 품목 및 적용 협정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 내실화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FTA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은 크게 「YES FTA 전문교육 사업」과 「YES FTA 컨설팅 사업」,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확대 보급 등인데 이를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은 2017년에 최초로 운영하면서 수집된 수요자 의견과 사업 추진 시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의 강점만을 살린 특화 분야인 품목분류 및 원산지증명서작성 과정 등 실습 과정을 확대·신설하고 과정별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회수는 늘리되 학습 부담을 줄여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년도 컨설팅 수혜기업의 의견과 FTA 컨설턴트의 애로 등을 반영하여 검증대응 컨설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활용실익이 높은 미활용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컨설팅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고자 한다.

셋째,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은 필요한 곳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관별 특화산업 또는 활용실익이 높은 미활용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을 소형SUV로 변경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확대·보급을 위해 모바일웹과 간편발급 및 모의판정 기능을 개발·제공하고, 원산지 검증 대응 관리 기능의 강화를 위해 FTA-PASS 영문 설명 자료 배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메인화면에 사용법 안내를 강화하고, HS 자문단을 구성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의견을 FTA-PASS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이다.

4. 수출검증 지원

FTA 교역확대 및 신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검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기업 스스로 원산지위험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치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모의검증 실시, 방문검증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민·관 협력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주요협정별 원산지검증 위반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5.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

FTA 해외 통관애로 발생 시 전달과정 접점별(해외 세관 → 해외 통관·수입업체 → 국내 수출업체 →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관세청)로 통관애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현지세관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청연수 및 공동세미나를 추진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유관기관 해외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청취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통관애로 사례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통관애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 해소창구인 관세협력관의 파견 확대요청에 따라 교역규모와 FTA 이행 및 전략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천진에 관세관의 추가파견을 추진하고 있고,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CO)의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은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이자 힘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통관 간소화, FTA 컨설팅, FTA 전문교육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수출검증 지원, FTA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FTA 상대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해외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수출확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FTA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이다.

관세청의 이러한 FTA 활용 지원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FTA 활용 중소기업에게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지원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FTA TRADE REPORT

